













시각장애인, 노인을 위한 알약 인식

오픈소스 주제 발표

목차







01

연구의 필요성























연구의 필요성

"작고 동그란 약 먹어라"...아파도 '약' 못찾는 시각장애인들

머니투테이 | 김지은 기자, 김성진 기자

2022.12.27 06:00





췌장염 앓은 시각장애인...진통제 찾지 못해 배 움켜 잡은 사연 편의점 약도 '점자' 의미 없어...약 잘못 먹기도

시각장애인 조민수씨(55-가명)는 지난 9월 어느 날 아래 배가 '쿡쿡' 쑤셨다. 한번도 겪지 못한 통증 이었다. 며칠 뒤 활동지원사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다. '췌장 확장'이라고 했다. 췌장이 우연 가에 막혀 늘어났고 심하면 췌장암이 생길 수 있는 벵이었었다. 의사는 "갑작스러운 복통이 올 수 있다"며 진통제와 수면제, 위약, 소화제 등 약 다섯 종류를 처방했다.

조씨는 그날 밤 11시쯤 복통을 느꼈다. 침대에서 내려와 약 봉투를 뜯었다. 손끝으로 한참 더듬었 지만 진통제를 찾을 수 없었다. 약 다섯 알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았다.

> 나이가 들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자주 부딪친다. 망막 주변부의 신경세포가 감소하면서 시야가 좁아져 주변부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. 75세의 노인은 시야가 젊었을 때의 2/3로 줄어들고, 90세가 되면 1/2로 줄어든다. 즉 눈앞에 펼쳐진 세상 이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다.

핵심 목표















시각장애인, 노인을 위한 알약 인식을 AI로 개발하자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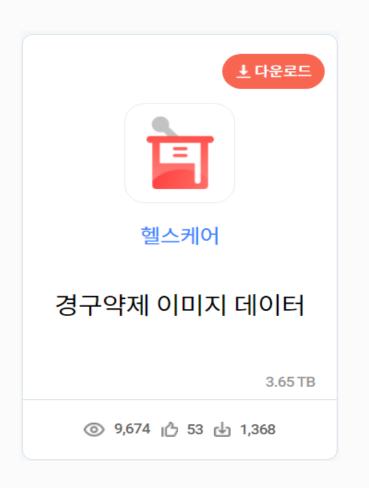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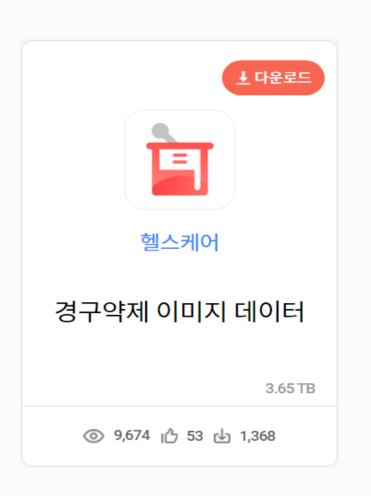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











Two-Satge Dectecor?

One-Satge Dectecor?













Two-Satge Dectecor

R-CNN, Fast R-CNN, Faster R-CNN















목표

경구약제 10종 분류 및 인식

식별성공률 90% 이상















THANK YOU

